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1:15-17

오영준 목사님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큰 응답, 대단한 역사, 어마어마한 증거가 아니라, 각인이다. 뿌리다. 그리고 체질이다.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씩 캠프를 가는데, 멀리 간다. 지난달에는 제주도, 이번 달에는 인천에 갔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 네 명이 학교에 이야기를 해서 빠지고 캠프에 참여하려 왔다. '저 아이들이 무슨 캠프를 하겠느냐' 생각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른들보다 훨씬 잘 전하는 것이다. 어른들이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면 쫓겨나는데, 아이들이 가서 하나까 아무도 안 건드린다. 3박 4일 전도했는데 4명의 아이들이 60명을 영접시켰다. 어른들이 전부 놀랐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어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초등학교 5학년 이전에는 거의 믿음이 신급이다. 100% 믿는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불신자가 되기 시작한다. 중, 고등학생 되면 완전 불신자가 되어서 믿음이 거의 0%가 된다. 물론 종교생이 희망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초등학교 때다. 이때 각인, 뿌리, 체질을 놓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체험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이들의 평생을 만드는 것이다. 같이 간 렘넌트 대학생들이 있는데, 전도를 잘 한다. 현장에 대한 가슴이 넘친다. 다녀오면 눈물로 기도한다. 이 아이들이 언제 그렇게 되었나 해서 포럼해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이전이었다. 이 아이들이 그때 현장을 체험한 것이다. 그때 미션 홈이 마음에 평강히 와 닿았다. 그때 스케줄 관리받으면서 전도를 놓고 도전했던 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대학생 때 현장 전도를 하는 것이다. 이 어린 시절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는 시간이 아닌가 싶다. 이 기초가 어떤 것을 가지고 오는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누구의 고백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왜 부르셨는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언제 시작할 수 있는가? 어린이 때다. 이 시기를 놓쳐버리고 중학생이 되어서 시작하겠나? 아주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친구들이 아니면 거의 안 되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는 어린이 시절이다. 왜냐

1. 어린이

(1) 어린이 시기는 자기 이해를 시작하는 시기다. 예전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했다. 그때 사춘기가 된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연령이 낮아졌다. 어린이 때 자기 이해가 시작된다.

- ① 맹목적 믿음, 교육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가 되면, '복음이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
- ② 거기에 가장 큰 동기가 세상 문화다. 아이들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다.
- ③ 초등학교 5학년 만 되면 사춘기가 온다. 빠른 아이는 4학년 때부터 온다. 고등학생 때에나 고민하고 겪을 일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겪는다. 고민이 시작되는데, 그 고민이 복음과 연결되는 것이다.

(2) 그래서 이 시기 때 반드시 복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때 복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

- 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맞는가. 이게 초등학교 때 확인되어야 한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지 않고 넘어가면,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 말을 듣고 통제를 따르지만, 중학생이 되면 아무리 부모가 말해도 듣지 않는 때가 온다. 애들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원래부터 그랬다. 힘이 없어서 눌러 있다가 이제 힘이 생기니까 반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하심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② 이게 교회에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육이 된다. 이게 사실화되는 부분은 결국 현장이다. 가장 중요한 현장이 부모님과 함께 하는 가정 현장이다. 아이들이 지금 혼자 은둔해서 세상 문화를 즐기기 시작한다. 부모도 사실 그게 편하다. 복음이 확인될 기회가 없다. 그런데 확인되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 이 아이들이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 초등 렘넌트들이 이때에 복음이 확인되면 시대를 변화시키게 된다. 전도를 체험한 친구들이 자라서 전도자로 서게 되는 것이다.

③ 이런 체험이 있어야 기도하게 된다. 기도수첩 던져주고 왜 안 하나 할 필요가 없다. 확인되면 할 수 있게 되고 되어지게 된다.

(3) 그래서 렘넌트에게 확신이 생긴다. 진짜 믿음이 생긴다.

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의 뿌리가 내려지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주인공으로 이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붙잡아지게 된다.

② 이 안에서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것이다.

③ 우리 아이들의 방향이 복음 안에서 나오면, 아이들은 분명히 이것을 누리게 된다. 갈1:16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다. 세계복음화 해라, 말라라 할 필요가 없다. 어린 아이 시절에 반드시 복음이 확인되고, 그 복음이 렘넌트에게 확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2. 부모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인가? 부모님이다.

(1)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있다.

①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큰 착각이다. 자녀가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와야 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가.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생각이다. 이 생각을 빨리 버려야 한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대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뭘 하라고? 복음을 심으라고. 그런데 내 생각, 기준, 동기를 다 가지고 자녀를 키운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살지 못한 화려한 삶,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보상. 이런 다른 것을 계속 심는다.

② 바울은 이것을 두고,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다. 갈1:1을 보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받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을 말한다.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심는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심는다. 까놓고 이야기해 보자. 렘넌트들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제대로 살아 보았는가. 제대로 성공해 보았는가. 진짜 행복해 보았는가. 사실은 그래본 적이 없다. 진짜 성공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캠핑 나갔을 것이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원하고 응답받은 것을 여러분이 다 이루었는가. 사실 못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동경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삶을 자녀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거야. 이렇게 살아야만 네 미래가 보장될 수 있어." 사실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아이들과 싸운다. 중고등학생들이 되면 부모와 본격적으로 싸운다. 같은 집에 살면서 한 마디도 대화를 안 한다. 계속 싸운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그렇게 무섭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다. 이게 바뀌어야 한다.

③ 이게 안 바뀌니까 문제가 뭐가? '성인 아이'다. 덩치는 커졌는데 아이 같은 삶을 산다. 엄마 품을 못 벗어난다. 이것을 썩어죽어라 죽이라고 한다. 어렸을 때는 열심히 키워서 학원 죽어라 보내서 좋은 대학 보냈으니 졸업하고 잘 살겠지 하는데, 엄마 품을 안 떠난다. 리터썩어죽이 있다. 결혼해서 분가했다가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온다.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다. 경제 문제 때문에 대가족이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야 하겠는가.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렘넌트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때가 되면 떠나보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내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못 산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책임 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뉘든 하나님보다 앞서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진짜 하나님께 맡겨라.

(2) 그리고 인정하라. 부모의 역할은 램넌트 메이커다. 램넌트들의 페이스 메이커다. 램넌트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가는 길에서 조절자가 되어야 한다.

①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램넌트를 세워야 한다.

② 집에서 오직 복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요셉이 보이든 안 보이든 평생을 요셉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곱처럼이다.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다가, 왕궁에서 자기 소개도 못 하면서 아들에게 언약적 한을 심었던 요세벳의 마음이다. 짓을 때때마다 아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야 했던 한나의 마음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엘리사가 열두 거리의 소를 몰고 농사를 짓는 거부의 자녀였다. 부족하지 않았다. 배경이 어마어마했다. 그런데 엘리사를 따라서 모든 것을 던지고 간다는 것이다.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겠는가. 디모데가 14세인데 바울을 따라서 세계 선교 여행을 간다는 것이다. 그런 디모데를 키웠던 부모님의 마음이다. 우리는 자녀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사는데, 자녀들을 하나님이 맡기셨다.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도록, 그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다.

③ 그래서 오직 복음을 놓고 여러분 가정에서 문화 회복을 하라. 다 같이 모여서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캠핑도 하고 외식도 하고 온갖 문화를 다 하는데, 앉아서 예배만 안 드린다. 가족, 자녀와 손잡고 통성기도 해 본 적 있는가. 같이 기도제목도 놓고 포럼하고 손잡고 통성기도 해 본 적이 있는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다. 다 통한다.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 복음문화를 여러분 가정에서 회복해야 한다. 기도수첩 하라고 던지지 마라. 안 한다. 해도 내용이 머리 속에 안 들어온다. 함께 하라. 함께 무릎꿇고 함께 기도하라. 중2병 걸린 아이들에게 어느 날 하자고 하면 미쳤냐고 한다. (웃음) 이 초등학교 때가 좋다. 그때 딱 시작해야 한다. 나는 딸과 그때 시작했다. 왜 했나? 이사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딸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다. 이게 발전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다. 가정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다 통한다. 시작해야 한다. 중고등부 늦었나? 지금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학 가서 술 먹고 돌아다니지 않게 된다. 같이 통하면서 기도하게 된다. 지금 하라.

3. 교사

교사 여러분에게는 이런저런 할 이야기가 많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니까 최선을 다해라, 왜 못 하느냐 이야기했다. 혼내는 강사들을 초청해서 혼내기도 하고, 달래는 강사, 꼬시는 강사를 불러서 꼬시고 달랬다. 바뀌는가? 다음 주 되면 똑같다. 안 바뀐다. 진짜 안 바뀐다. 늦는 사람 똑같고 뒤에서 잡담하는 사람이 똑같다.

(1) 선생님들, 행복하냐? 1주일 내내 시달리다가 주일 하루 쉬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기도회하고 예배하고 교사모임하고 또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하나씩 지킨다. 그러니 아이들을 대할 때 힘이 없다. 무슨 포럼을 할 수 있겠는가. 대충 아는 것 던지고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다. 그래서 물어봤다. “행복하십니까?” 이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 같다. 진짜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면 아무 것도 아니게 된다. 왜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가?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나왔을 때에 그 신기함과 놀라움과 행복 때문이다. 그래서 평생을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교사로서 행복한가?

(2) 그러면 정말 참 헌신을 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목사여서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현장 나가서 전도할 수 있다. 나이 40대에 200도 안 되는 월급 받으면서 사는데, 세상 나

가면 무능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행복하다.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낸다.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이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이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누가 불러도 달려간다. 교사여서 행복한가. 아이들에게 심방해라, 관심 가져라, 맛있는 것 사 줘라 할 게 없다. 행복 하나까. 아이들 만나는 자체가 행복하고, 아이들을 보면 너무 기쁘다.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찾아보라. 중고등부 선생님도 있고, 대학 사역, 지역 사역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가, 아니면 그것이 맡겨져서 행복한가. 행복을 되찾아라. 복음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행복을 되찾아라.

(3)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에게 그의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는다. 계속 현장에 나간다. 가방 들고, 전도지 들고 들어가 본다.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난다. 가방 들고 전도지 들고 들어가는 순간 ‘여호와 증인이세요? 안상홍? 신천지?’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 안 믿는다. 교회라고 하면 띠 띠고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줄 뿐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나왔다는 것부터 설명하고 이해시킨다. 교회가 하는 전도가 천막 쳐 놓고 주스 나눠주고 토스트 나눠주는 것인가. 아니, 여호와와 증인 아이들은 여호와와 증인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도 당당히 이야기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밥 먹을 때 기도도 못 한다. 다 빼앗겨 버렸다. 학교 현장 전도하려고 하면 교문에서 쫓겨난다. 밖에서 조금 전도하면 경찰이 찾아온다. 아무도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너무 이상한 시대가 되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을 전하라고 불렀다. 그 일에 주역이 될 램넌트를 여러분 손에 맡기셨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라. 우리 램넌트들을 놓고 어떤 욕심도 다 버려 버려라. 경로당이 보라. 서울대 졸업한 할아버지와 초등학교 졸업한 할아버지가 10원짜리 가지고 고스톱 친다. 이대 나온 할머니들끼리 10원짜리 가지고 싸우고 있다. 직장, 학력이 나이 들면 아무 것도 아니다. 다 이 빠지고 허리 굽고 지팡이 짚는다. 경로당 모여서 남 뒷얘기 하면서 흥보며 지낸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 램넌트들은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여기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이다. 이 일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무엇인가?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나는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다. 표어가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켜 뿌리내리는 교회라고 했다. 연간 기도제목과 보고, 너무 기도제목이 복음적이어서 놀랐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고 알맞은 기도제목이었다.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기도제목이었다. 이대로만 기도해도 되겠다, 이대로만 가슴에 붙잡고 기도해도 응답받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배 전에 최정웅 목사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 중심으로, 전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램넌트가 된다면, 이 아이들이 대통령이 되건, 동사무소 공무원이 되건, 길거리 봉어빵 장사가 되건 무슨 상관이었는가.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는가. 아침에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다녀서 진짜 성공하면 연봉 1억, 2억 받는다. 그러면 주인인가? 연봉 1억 짜리 중이다. 길에서 봉어빵 열심히 팔아서 하루 5만 원 판다면, 한 달에 150만 원 번다. 그게 실패한 인생인가? 아니다. 둘 다 똑같이 중이다. 그런데 왜 우리의 목표를 중된 삶 사는 것에 두는가. 왜 우리의 목표를 중된 삶 사는 것에 두는가. 연봉 10억을 벌면 자유인인가? 중이다. 노예다. 사단에게 매인 인생이 된다. 그래도 10억 받는 노예 되겠다고 생각하는가? 빨리 생각을 바꿔라. 임금들 앞에, 이방인 앞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 진짜 성공자다. 하나님은 우리 램넌트들에게, 각자에게, 모두 다른 달란트와 그릇을 주셨다. 인정하라. 생김 것이 다른 만큼, 달란트도 그릇도 다 다르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그릇과 달란트에 합당한 삶, 교회 안에서 복음 중심으로, 전도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라. 이것만이 자녀 살리고 세상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의 인생, 램넌트의 미래를 통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한다.